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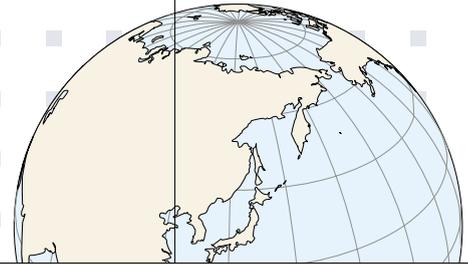


이화소식

NEWS^{WHA}

2004년 11월 17일 발행 제67호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박통희 |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앞의 두 건물이
이화·삼성 글로벌타워,
뒤 왼쪽 건물이 이화어린이집

이화·삼성 글로벌타워, 이화어린이집 기공식 21세기 미래 인재들의 삶과 꿈의 보금자리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이화의 역량과 면모를 한단계 높여줄 '이화·삼성 글로벌타워'와 국내 최고 수준의 직장 보육시설이 될 '이화어린이집' 신축공사 기공식(아래 사진)이 지난 10월 7일(목·오전10시) 본교 서문 밖 주차장 부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화학당 정의숙 명예이사장, 윤후정 이사장, 신인령 총장, 권인혁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윤순희 총동창회장, ALPS(여성최고지도자과정) 동창회원 등 내외 귀빈과 교직원들이 참석, 국내외 인재들의 보금자리 건립을 축하했다.

신인령 총장은 “글로벌 타워가 건설되면 이화를 찾는 외국인 학생, 교수들이 대폭 늘어나 국제적인 학술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어린이집 신축으로 교직원과 재학생이 자녀 양육의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첫 삽을 뜨는 기쁨을 표실했다.

‘이화·삼성 글로벌타워’는 국내외 대학원생 및 교환학생, 외국인 교수 등 장기체류자를 위한 주동(4백5명 수용)과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자를 위한 별동(1백6명 수용)으로 구성되었으며 2006년 초 완

공된다. 세미나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카페테리아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5천9백82평 규모의 첨단 국제 기숙사로 꾸며진다.

2005년말이면 정식으로 어린이들을 받게 될 ‘이화어린이집’은 본교 교직원, 재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만1세~5세 자녀들을 위한 직장탁아소로 지하 2층·지상 4층에 연면적 7백40여 평, 1백1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교육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화어린이집’ 운영위원인 조형 교수(이화리더십개발원장)는 “이화가 그동안 쌓아온 유아 및 아동교육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국내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지역사회의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일부를 개방하고, 장애아동 편의 시설을 갖춰 장애/비장애 통합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에서 ‘이화·삼성 글로벌타워’의 건립기금 일부를, ALPS 동창회에서 ‘이화어린이집’ 건립기금 일부를 각각 지원했으며 시공은 신세계 건설이 맡았다. <효>



'포스트 게놈시대의 다학제간 생명과학 융합체제 구축' 총 36억 5천만원 지원받아

그간 본교가 특성화 분야의 하나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해온 생명과학 분야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본교의 '포스트 게놈시대의 다학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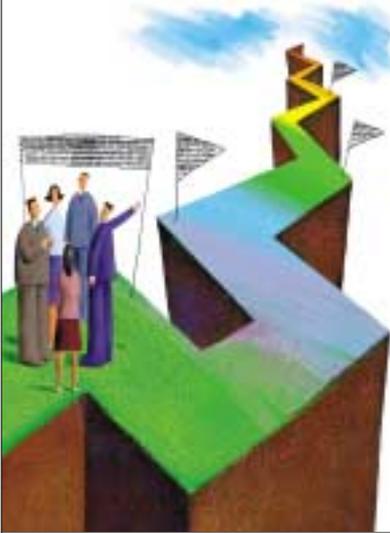
생명과학 융합체제 구축' 프로젝트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년도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총 36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 것.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총 6백억원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서 본교는 지원금의 규모에서 서울대(41억 5천만원), 한양대(38억 9천만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의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은 올해부터 산학협력단 설치, 교원확보율 50% 이상 등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신청부터 제한하는 등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그 결과 신청서를 제출한 62개 대학 중 대규모(학생수 1만명 이상) 11개 대학과 중·소규모 16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이공주 교수(분자생명과학부)는 "그간 학교의 지원으로 이서구 박사를 비롯한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종합과학관 C동 신축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췄던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며 "이화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약학, 의학, 생명과학 등 다학제간 연구체제가 이번 지원을 계기로 한층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본교의 생명과학분야 특성화 사업은 앞으로 의학관련 연구 및 포스트 게놈시대의 전문인력 양성, 산업체 인력교육 및 지원, 첨단 생명과학기술 응용 연구, 신약개발, 기술산업화 등 인재 양성과 연구력 제고, 산학연 협동 활성화의 세 분야를 축으로 전개될 계획이다.



정의숙 명예이사장 제18회 인촌상 <교육부문> 수상

"여성 교육의 역사에 벽돌 하나 얹은 심정"

정의숙 이화학당 명예이사장이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제정한 제18회 인촌상의 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이화학당 윤후정 이사장, 신인령 총장 및 3백여명의 축하객이 모인 가운데 10월11일(월·오후 3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상패 전달식에서 현승중 인촌기념회 이사장은 "정의숙 명예이사장이 40여 년간 이화여대에 봉직하면서 우리나라 여성교육과 이화여대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는데 매진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명예이사장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여성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훌륭한 스승들을 대신해 상을 받게 되었다. 여성 교육계 전체를 격려하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도 여성 교육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선배들이 정성껏 쌓아온 돌담 위에 벽돌을 하나 더 얹는 심정으로 여성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교육부문 수상자인 정 명예이사장 외에 ▲인문사회문화부문 김충렬(金忠烈) 고려대 명예교수 ▲자연과학부문 임지순(任志淳) 서울대 교수 ▲산업기술부문 김쌍수(金雙秀) LG전자 부회장 ▲공공봉사부문 한명자(韓明子) 충북 청원군 금관보건진료소장 등이 수상했으며 각각 상금 5천만원이 수여됐다.

정 명예이사장은 상금 5천만원 전액을 본교 이화캠퍼스센터(ECC) 건립기금(2천5백만원)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축기금(2천5백만원)으로 기탁했다.



정의숙 이화학당 명예이사장

중앙일보 2004년
전국대학평가 결과

사회복지학과 전국 31개 대학중 최고 점수

내실 있는 교육으로 우수 인력 양성에 앞장서

사회복지학과가 지난 9월23일 발표된 '중앙일보 2004 전국대학평가' 결과, 교수연구, 교육여건, 재정·시설 영역에서 전국의 31개 사회복지학과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교수 당 연구비가 타대에 비해 월등히 높고, 교수 당 학생수 비율은 낮아 밀도 있는 교육을 펼쳐왔으며, 실습 관련 시설 및 장학금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과는 99년의 중앙일보 평가 최우수에 이어, 2002년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실시한 평가에서도 최상위를 기록, 사회복지학 분야의 최강자 자리를 굳히고 있다.

학과 창설 57주년을 맞이한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박사 1호인 박보희 동문(1기 졸업생) 등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출해 왔으며, 특히 임상 영역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학과장 한인영 교수는 "앞으로도 교수들의 연구 활동과 교육여건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학과는 2006년부터 사회복지 전문대학원으로 체제를 바꿔, 한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최신 디자인과 기능으로 접속률이 쑥~!

본교 홈페이지(<http://www.ewha.ac.kr>)가 5개월 여의 준비작업 끝에 10월13일(수) 전면 개편됐다. 2001년 이후 3년만에 완전히 새 모습으로 단장한 홈페이지에 대해 이화인들은 '세로라인의 디자인이 신선하다' '사용이 편리해졌다' '깔끔하다'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채기준 정보통신처장은 "개편하고 나서 랭키닷컴의 순위가 부쩍 오를 정도로 접속이 많아졌다"면서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대폭 수용하여 이화의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콘텐츠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먼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별(예비이화인·이화인·일반인)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타겟 유저별 서비스와 빠르고 다양한 검색이 가능한 통합검색시스템이 도입됐다.

또 첫 화면에 '사이트 바로가기'와 '서비스 바로가기'를 두어 사용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사이버캠퍼스지도를 플래시로 제작해 학내의 위치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관리·배포해 주는 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고 웹 스타일가이드도 새로 마련했다.

정보통신처 진윤경 주임은 "그동안 임시방편적인 페이지 생산으로 홈페이지의 일관성과 웹 아이덴티티가 부족했다"며 "CMS를 이용하면 워크플로우를 통한 출판관리와 웹 스타일가이드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CMS의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화의 커뮤니티를 하나로 통합한 것도 이번 개편의 특징 중 하나. 이화사이버커뮤니티, 이화동창, 이화인닷컴넷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사이트를 이화인닷컴넷으로 모두 통합했다. 재학생·교직원·동문의 단일 커뮤니티가 될 이화인닷컴넷(www.ewhain.net)은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보강하여 12월에 새 사이트를 선보인다.

정보통신처는 2004년 이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1단계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2단계로 11월중에 로그인 한번으로 학내의 모든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이화포탈정보시스템(EPIS)을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화를 최첨단 e-캠퍼스로 업그레이드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효>

이화소식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현지방문 평가 실시

본교 발전과 교육 및 연구 역량 확인하는 계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이하 대종합평) 현지방문 평가(사진)가 11월2일(화)부터 4일(목)까지 본교에서 실시됐다. 지난 1995년 한국대학교육사상 최초로 실시된 제1주기 대종합평에 이어 꼭 9년만에 이루어진 제2주기 대종합평은 정보화, 국제화, 고객화 등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을 유도하고 개별대학의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권장함으로써 한국 대학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1주기 대종합평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는 본교는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중장기 대학발전 과제와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으며 특히 2003년 3월에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와 연구위원회를 구성, 그간의 대학발전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해 왔다. 본교의 이같은 자체 평가 결과는 지난 9월17일, 5백7쪽의 '자체평가연구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치러진 이번 현장평가는 첫날의 대학현황 발표(경영관ホール)및 교내시찰(자연사 박물관, 도서관, 기숙사, 종합과학관 C동, 이화-포스코관, 학생문화관), 평가수행(인문관)및 분과별 교직원·학생면담, 둘째날의 평가수행 및 분과별 교내 시찰, 마지막날의 평가수행(인문관)및 종합회의, 현지상호협의회(교무회의실)순으로 진행됐다.

본교 현지방문평가단은 관동대 법학과 김민섭 교수를 위원장으로, 서울대



미학과 이창환 교수, 고려대 화학과 전승준 교수, 국민대 노노전자물리학 전공 김철성 교수, 대구대 산업시스템공학 전공 정원 교수, 공주대 교육학과

임연기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경영 및 발전 전략, 비전, 학사 및 논문지도, 교육·사회봉사, 학생 및 교수·직원, 연구 및 산학연동,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현황을 점검했다.

이들 평가단은 마지막날의 현지상호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한 이화여대의 열정과 성의에 감명받았다"면서 "대학종합평가는 자체 평가와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 발전의 계기로 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평가를 포함하는 대종합평 평가 결과는 내년 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본교, 사설어학원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이화' 'Ewha' 브랜드 지켜냈다

본교가 학교 명칭인 '이화', 'Ewha' 마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사설어학원인 ELC 코리아(주)를 상대로 특허청에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본교가 지난 5월 ELC코리아(주)의 '이화어학원' '헬로이화' 등 6건의 서비스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ELC코리아(주)의 서비스표는 이화여대의 표장과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이화여대를 나타내는 '이화' 또는 'Ewha'는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사설 어학원의 이번 사건 등록상표는 이화여대를 나타내는 '이화' 또는 'Ewha' 표장과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서비스표의 출처를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원고 승소심결 이유를 밝혔다.

본교는 지난 2003년 영어교육 등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ELC코리아(주)가 해당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후 이를 어학원과 어린이 영어공부방 등에 사용하자 올5월, 일반 수요자들이 이들 어학



원이 마치 '이화여자대학교'나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했었다.

기획처 김유환 부처장은 "ELC코리아(주)의 '이화' 및 'Ewha' 표장이 포함된 서비스표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이화' 및 'Ewha'라는 저명한 표장에 대하여 이제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이화학당'만이 지녀온 고유성과 순수성이 파괴될 것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본교는 교명인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 '이화' 'E.W.H.A.' 등 표장을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해 두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97년 연세대가 '연세' 마크와 관련된 상표 분쟁에서 이겼으며 미국 하버드대, 버클리대 등도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본교가 이번 분쟁에서 승소함에 따라 명문대학의 고유 명칭을 사회적 자산으로 보호하는 추세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생명에게 건강한 뿌리와 새싹을” 침팬지 연구가 제인 구달 박사 10일 본교서 강연회



“인간만이 인격을 가진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나면 세상의 많은 생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연의 생명력은 끈질긴만큼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보살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야생 침팬지 연구의 창시자이자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사진)가 11월10일(수·오후6시) 본교 대강당에서 가진 '희망의 이유' 강연회에서 한국 청중들에게 강조한 메시지이다. 본교와 한국과학문화재단, 서울대 동물장기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강연회에서 구달 박사는 1천여 명의 청중에게 독특한 침팬지식 인사를 나눈 뒤 그와 46년을 함께 해온 침팬지들의 모습을 슬라이드로 상영하며 생물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전했다. 강연회 후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자신의 저서에 직접 사인해 주는 책 사인회도 가졌다.

그는 사인회를 통해 청중들과 일일이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환경 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가슴으로 일깨워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영국 출신인 구달 박사는 1960년 탄자니아의 곰비국립공원에서 야생 침팬지 연구를 시작, 이에 평생을 바쳤으며 현재 야생동물 보호와 세계 환경 보전을 위해 전세계를 돌며 매년 1백회 이상의 강연회를 갖고 있다.

그가 세운 '야생생물 연구와 교육 및 보호를 위한 제인 구달 연구소'는 탄자니아,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모든 생명체에게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구달박사의 '루츠 앤 슈츠'(Roots & Shoots·뿌리와 새싹) 운동을 한국에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 <호>

2004 이화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이화 속에서 세계를 경험해요”

'Mr. 이화 선발대회' 진에는 홍콩의 웨이춘우씨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출신 국가·학교에 대한 유학정보 및 자국의 문화를 주고받는 '2004 이화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11월11일(목·오전10시~오후7시)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에서 펼쳐졌다. 하루 종일 축제처럼 이어진 이번 행사는 교환학교 박람회, 유학·교환 학생 프로그램 설명회, 'Mr. 이화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하버드대학, 와세다 대학, 토론토 대학 등 세계 70개 대학이 참가한 교환학교 박람회는 대학들의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부스마다 각 나라 전통음식들의 맛 대결이 곁들여져 인기를 끌었다. 유학·교환 학생 프로그램 설명회에서는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대사관과 문화원 담당자들이 직접 나와 자국에서 공부하려는 한국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Mr. 이화 선발대회'(사진).

이화에 교환학생으로 온 10명의 남학생이 참가, 화려한 장기자랑을 펼친 결과, 한국 가요 '사랑의 바보'를 한·중·일어로 부른 웨이춘우(홍콩, 차이니스 대학)씨가 이화 최고의 남성인 '진'으로 뽑혔다. '선' 헨리 슈마커(독일, 마틴 루터대학)씨는 연극 '여보세요, Two Bears'에서 한국 동요 '곰 세 마리'를 불러 인기를 모았으며, '미' 도미니크 피셔(독일, 패더봄 대학)씨는 인형을 이용한 코미디를 펼쳐 갈채를 받았다. <민>

제4회 김옥길 기념강좌 - 새로운 주제로 학계의 이목 끌며 '문화와 권력의 관점에서 본 상상력과 세계화'

이화의 큰 스승 김옥길 선생을 기리는 제4회 김옥길 기념강좌(사진)가 10월15일(금)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문화와 권력의 관점에서 본 상상력과 세계화'를 주제로 열렸다.

인문학연구원(원장 정재서 교수)이 주관한 이번 강좌에는 3백여명의 청중이 참여, 역동적인 지구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상상력의 세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강연 발표는 신화학계의 거목인 브르스 링건 교수(미 시카고대 종교사학)가 '세계화와 신화: 마르코폴로 이



이야기'란 주제로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담긴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한 데 이어, 본교 김은실(여성학)교수의 '초국가적 문화공간과 문화번역가로서의 여성집단', 가야트리 스피박 교수(미 콜럼비아대 비교문학)의 '언어는 지역적인 것인가?', 조동일 교수(계명대 석좌교수)의 '권력과 상상력, 서사시에서 보이는 상관관계'가 차례로 이어졌다.

이번 제4회 김옥길 기념강좌는 학계 최초로 '상상력과 세계화'의 문제를 주제로 다룸으로써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제1회 이화 한국영화제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영화 잔치

'태극기 휘날리며' '올드보이' 등 총 8편 상영



국제교육원(원장 김은미 교수)이 마련한 아주 특별한 영화제가 11월2일(화)~4일(목)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언어장벽으로 한국에 살면서도 우리 영화를 제대로 즐길 수 없었던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영화 잔치 '제1회 이화 한국영화제(사진)가 그것. 김은미 국제교육원장은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국 영화를 엄선, 영어 자막과 함께 주한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주한 스웨덴, 핀란드, 수단, 베네수엘라 대사를 비롯, 외국상사 임직원, 외국인 유학생 등 1천1백여명의 관객이 찾은 이화 한국영화제에서는 '태극기 휘날리며', '올드보이', '오아시스',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송환'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화제작 8편이 상영되었다. 매일 저녁에는 박찬욱, 임순례, 김동원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돼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는 이화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찬욱 감독은 "늘 마음 한구석에 외국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막영화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주한 외국인에게 우리 영화를 알리는 뜻 깊은 영화제에 초대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제의 기획은 본교 계절학기에 '근현대 한국·아시아 영화론'을 강의하는 이향진(영 세필드대 동아시아학부)교수가 맡았다. 영국에서 3년째 '코리안 필름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한국 영화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교수는 오는 12월 이화 한국영화제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영국의 브리스톨, 런던, 맨체스터 등 15개 도시를 순회 상영할 예정이다. <효>

학술제 소식

이화 나노바이오 국제 심포지움

나노과학부는 10월19일(화)~20일(수) 양일간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이화 나노바이오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나노 과학의 미래를 전망하는 이 자리에는 1999년 세계 최초로 '나노 잉크'를 개발한 채드 머킨 교수(미 노스웨스턴대·사진)가 연사로 참여, '생체 진단 분야에서의 나노 구조: 의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영역'을 주제로 강연했다.



현존 스위스 작가 낭송회

노벨문학상 수상 오스트리아 작가 엘리벡의 문학세계

기호학연구소(소장 최민숙 교수)와 독어독문학과는 10월30일(토·오후3시) 포스코관 B153호에서 스위스 현존 작가 3인을 초대, 스위스 작가 낭송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어 11월1일(월·오후5시), 같은 장소에서 이병애 교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오스트리아 작가 엘리벡의 문학세계' 특강을 열었다.

18세기 조선의 사회와 문화 한국문화연구원 학술대회

한국문화연구원(원장 정하영 교수)은 11월18일(오후2시) 인문대 교수연구실 111호에서 '18세기 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주제로 제2회 한국학 기반조성 특성화사업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울대 정옥자 교수('18세기 조선의 사상적 동향'), 동국대 김태준 교수('18세기 서울,북경,동경'), 본교 김경미 교수('18세기 여성의 삶'), 본교 신하윤 교수('조선 후기 문인의 외국문화 인식')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초빙교수제 협정 체결



지난 10월7일, 총장실에서 신인령 총장과 권인혁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왼쪽)이 초빙교수제 협정서를 교환했다.

양기관은 앞으로 상호 협력하여 역량있는 중진급 외국인 연구자 초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빛으로 물든 이화,



여유로운 자연의 품에서
 넉넉한 자연의 품에서 가을에
 물든 이화인들의 표정이 한껏
 여유롭다. 가을단풍이 본격적
 으로 시작된 지난 10월23일
 (토) 북한산에서 열린 '이화가
 족 등산대회'. 신인령 총장을
 비롯, 교직원 3백여명이 참가
 했다. 재! 우리도 떠나볼까?



미래로 이화, 세계로 한국음악 한국음악과가 서른살 생일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다. 창립30주년 기념 추계 행사로 '입상자
 발표회(10월13일, 국악연주홀)', '성악의 밤(10월28일, 국악연주
 홀)', '협주곡의 밤(11월3일, 김영의홀)'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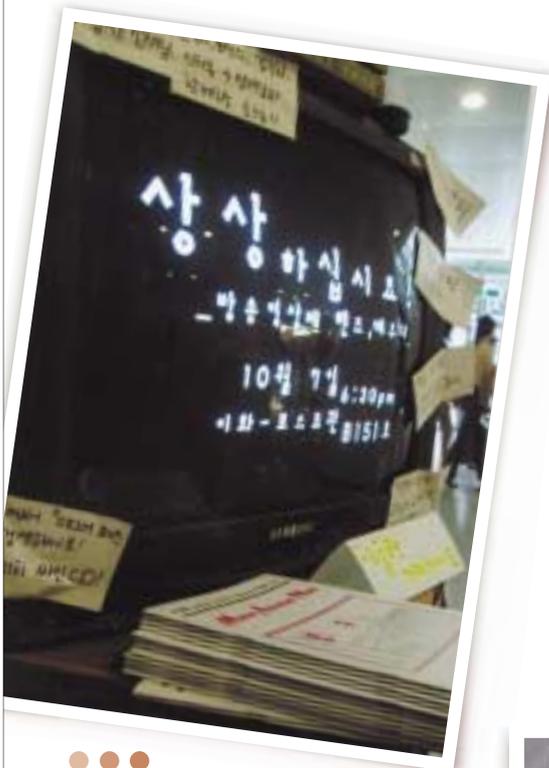


이화인의 따뜻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의 한걸음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요'.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사랑으로 한걸음' 대행진이 10월27일(수 · 12시30분) 펼쳐졌다. 대운동장에서 도서관, 팔복동산까지 이어진 이 모금행사에서 모인 이화인들의 이웃 사랑은 서대문구의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이화인...



“네가 놀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한가울에 펼쳐진 과학의 향연 'WISE 과학축제'. 우리나라 여성과 학도들의 지원 기구인 WISE 거점센터 주최로 10월30일(토·오전 10시~5시) 본교 교정 곳곳에서 열렸다. 사이언스 카페, 원자야 놀자, 하모니속 과학이야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신기한 과학의 매력 속에 빠져들었다.



청중들에게 환영사를 건네는 신인령 총장.



대운동장의 마지막 콘서트 11월3일(오후7시) 펼쳐진 이화캠퍼스센터(ECC) 콘서트. 대운동장에서의 마지막 콘서트이기 때문일까, 불꽃같은 열기만큼이나 강렬한 추억이 이화인들의 가슴 한켠에 남았다. 이날의 콘서트가 ECC를 향한 이화가족의 뜨거운 성원으로 이어지길...



마음껏 발산한 젊은 끼

'우리는 지금, 미디어에 종속되었다.' 우리나라 언론 홍보계를 짊어지고 나갈 언론홍보영상학부 학생들의 당돌한(?) 선언이다. 이들의 '제4회 미디어 페스티벌'이 이같은 주제 아래 10월5~8일 포스코관 B151호에서 마련됐다. 헌혈 활성화 광고홍보 전략을 공모한 '광고홍보제', 우리나라의 언론 현실을 토론한 '언론제', 창작 영상물들이 선보인 '영상제', 언론홍보영상학부의 선후배가 모인 '언홍영의 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톡톡튀는 감각으로 진행됐다.



학습법과 교수법에 관한 두 책자 펴내 화제

이화교수 학습센터(소장 허명 교수)가 펴낸 두 권의 책자가 최근 언론에 소개되는 등 교내외에서 불꽃같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학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효율적인 학습 전략과 비법을 알려주는 '학습자 가이드북' (2004년 3월)과 베스트 티처로 뽑힌 본교 교수들의 강의 비법을 담은 '나는 이렇게 강의 한다' (2004년 8월)가 그것.

성공적인 학습 전략과 비법 등 2장으로 구성된 '학습자 가이드북'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선생님들께 감명을 주는 10가지 제안', '당일치기 노하우' 등 선후배 사이에 구전되던 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눈길을 끈다. 이 책자는 "무엇보다 시간을 경영하는 것이 대학생활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본교 강의우수교수 10인의 강의법을 소개한 '나는 이렇게 강의 한다' 역시 화제다. 이경림 교수(약학)는 "최대한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정성과 배려하는 자세로 수업 준비에 임할 것"을 강조한다.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맡고 있는 정대현 교수(철학)는 효과적인 강의법은 물음의 최대화라며 "학생들로 하여금 난해한 철학의 주제를 구체적



인 모습으로 나타내려는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영상언어의 문법과 표현력을 키우기 위해 '철학적 주제의 만화 그리기'를 과제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안홍식 교수(경제학)의 '국제금융론'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강의실 참여를 2점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퀴즈방에서 4~6회의 퀴즈시험을 활용하고 있다.

2002년 6월 개원한 이화교수학습센터는 교수와 학생들을 위한 교수법과 학습법을 연구·개발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수들에게는 교수법 관련 워크샵 개최, 교수법 가이드북 제작, 강의 촬영, 교육 매체 제작 지원, 교수 지원 자료 연구, Teaching Tips 개발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수업 분위기 형성과 교수 능력 향상을 돕는다. 학생들에게는 Learning Tips 개발, 학습 지원 자료 연구, 대학학습가이드북 제작 등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 활동을 유도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 강의의 실천적인 전략을 담은 '대학강의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중심의 강의계획안을 소개한 'Learning Centered Syllabus', 외국 여러 대학 교수들의 강의계획안을 모아놓은 자료집 'Collection of Syllabus'를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

각종 대회를 휩쓴 탄탄한 실력

수상한(?) 이화인들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잇따라 수상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지난 10월12일, 국제대학원 재학중(4학기)인 임소진씨가 유엔한국협회에서 주관하는 '제3회 전국대학(원)생 UN논문경연대회'에서 '전후 이라크와 유엔의 역할'이라는 논문으로 우수상을 차지했다. 임씨는 단독 논문을 제출, 1차 심사와 논문 발표회 형식으로 이뤄진 2차 심사를 거쳐 좋은 성적을 올렸다.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한 또다른 대회였던 제10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6월29일~7월2일)에서는 국내 51개 대학, 3백41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치외교학 전공 학부생(3년) 이승현, 전채경씨가 최우수상인 외교통상부장관상을 공동수상했다.

이들은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2회 아시아-태평양 모의유엔회의에도 한국 대표로 참가, 이승현씨가 최우수상(The Leadership Awards)을, 전채경씨가 인기상(Popularity Awards)을 따냈다.

10월19일에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관한 '제3회 한국문학번역 신인상'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한불전공 2년) 심소정씨가 선정되어 3백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화 동문인 고

은주 작가(국문 99년 졸)의 '카테일 슈가'를 불어로 번역한 그는 "원작 특유의 문체를 경쾌하고 세련된 불어 문체로 옮겼다"는 호평을 받았다.

심씨는 지난해에 모리스 르블랑의 '호랑이 이빨 1.2'를 번역 출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류직물학 전공생들의 연이은 디자인 콘테스트 수상 소식도 있었다. 10월2

일에는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주관 '병원 유니폼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석사과정(4학기) 김경선씨가 기능성 직물을 이용해 디자인한 수술복, 간호사 가운, 환자복 제작품으로 대상인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0월9일에는 국내 최고 권위와 전통의 패션 디자이너 등용문인 '제35회 중



임소진 씨

심소정 씨

김경선 씨

앙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의류직물학 전공 학부생 3~4학년 8명이 대거 입상했다. 은상에 오인영씨, 동상에 안효정, 권은경, 이정은씨, 장려상에 설지혜, 신원정, 김혜진, 박상영씨가 각각 뽐혀 패션 분야의 이화의 힘을 과시했다.

중앙일보 창간 39주년 특별기획인 '대학생 기획·탐사기사 공모전'에는 언론홍보영상학부 학생들의 응모작이 우수상과 가작에 나란히 당선, 지면(9월30일, 10월2일자)을 장식했다.

우수상 당선작인 홍유진(언론정보 전공 4년), 황혜경(방송영상 전공 4년)씨



이승현·전채경 씨

홍유진·황혜경 씨

의 '담 없는 대학교육을 꿈꾼다'는 명료한 주제와 다양한 현장 사례를 발굴한 취재력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노은미(언론정보 전공 3년)씨가 진명구(한양대 법학과)씨와 함께 취재한 '아나운서 시험은 미인선발대회?'는 '흥미있는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

“전교생 대상으로 E-커리어 카드제 도입”

커리어 캠프 운영, 리더십·인턴십 과목은 대폭 확대 - 경력개발센터 원장 강혜련교수

“졸업후 뭘하고 살지?” 청년 실업을 증가로 취업을 위한 경력 개발이 대학생들간의 화두가 된지는 이미 오래.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으로 2009년부터 모든 대학의 취업을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대학의 취업을 높이기 경쟁 또한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원, 타 대학보다 앞서 체계화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경력개발센터(Career Development Center) 강혜련 원장(경영학부 교수)을 인터뷰했다.

“구직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의미의 취업 알선에서 벗어나 숨어있는 수요자들을 겨냥한 적극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학교 전체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경력개발센터를 한번도 찾아오지 않은 이화인들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실제로 이대학보가 10월 28~29일, 이화인 3백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화인의 취업’ 설문 조사 결과(11월1일자 게재), 응답자의 71.8%가 경력개발센터를 한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진로 결정 시기는 상당히 빨라서 절반 이상이 대학교 1학년 이전(입학전 33.0%, 1학년때 17.3%)에 이미 진로 결정을 마쳤다고 응답했다.

“입학 당시 작성하는 학생카드의 기능을 보완, 1학년때부터 졸업후까지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유도하는 E-커리어 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 및 선택, 경력개발 훈련 내용과 과정, 구직활동, 취업 현황 등 이화



경력개발센터 원장 강혜련교수

인의 경력개발 및 취업활동이 한눈에 파악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를 단과대학, 경력개발센터의 취업정보 시스템과 연계하면 졸업생의 취업현황 실시간 파악과 지속적인 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4학년 위주로 진행되던 취업상담 프로세스 역시 대폭 개선된다. 저학년들을 위해서는 자기 이해 및 진로탐색을 돕는 집단상담 I, 경력개발과 진출 목표 설정을 위한 집단상담 II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고학년이 되면 취업시장 현황 파악, 전략수립,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을 지원한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도 강화해 서류교정, 면접 지도, 직업선택 스킬 등을 조언하는 취업클리닉을 운영한다.

“그간 특강 위주로 이루어지던 취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 중심으로 바꾸

어 이를 방학중에 커리어 캠프라는 집중 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 원장은 또 수요에 비해 수강 기회가 적었던 리더십, 인턴십, 멘토링 교과목은 대폭 늘려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력개발 지원도 강화할 생각임을 밝혔다.

경력개발센터의 이같은 노력이 이화인들의 뜨거운 참여와 호응 속에 ‘이화=전문직 진출의 지름길’이라는 공식으로 이어질 것인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덕>



인터뷰

“사투리 못 알아들을 때 제일 답답해요”

국적 다르지만 우리도 이화인!!! -- 페이지 오즈투르크, 가오지홍, 기구치 유우끼

100% 영어 강의가 이루어지는 국제학부와 국제대학원은 ‘글로벌 이화’의 자랑. 그러나 최근 이화인들 사이에 끼어 한국어로 모든 수업을 듣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또한 소리없이 늘고 있다. 이중 터키의 페이지 오즈투르크(20세·경영학부 1년), 중국의 가오지홍(24세·경영학 2년), 일본의 기구치 유우끼(21세·무용과 1년)씨를 만났다.

◆ **이화와의 인연** 세 사람 모두 주변에 이화에 먼저 유학왔던 친지들로부터의 권유가 있었다고.

“요령성 사범대학에서 한국어를 2년간 공부했어요. 그러다 세계 최대, 최고의 여성교육기관이라는 이화여대를 꼭 다녀보고 싶어 전공까지 바꿔 1학년때부터 다시 시작했지요.”

지홍씨의 ‘이화 사랑’은 한때 캠퍼스 투어 리더로 활동했을 만큼 각별하다.

2002년 월드컵 4강전인 한국·터키전을 보고 한국에 매료되었다는 페이지씨는 서울대와 고대에도 함께 지망했다 1년간 장학금을 주는 이화를 선택했고, 일본의 유우끼양은 서울국악예고 1학년 재학 당시, 이화여대생들의 한국 무용 공연을 보고 감명받은 것이 인연이 되었다.



왼쪽부터 가오지홍, 페이지 오즈투르크, 기구치 유우끼 씨.

◆ **우리들의 꿈** 이들은 어떤 꿈을 갖고 이화에 왔을까. 한국만큼이나 취업이 어렵다는 터키에는 최근 삼성, 현대 등 한국회사의 진출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한국어와 경영학을 공부해 터키의 한국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다는 페이지씨. 그러나 “술을 너무 좋아하는 한국남자와의 결혼은 절대 사절”이라며 고개를 젓는다. 유우끼씨는 “뛰어난 한국 무용수가 되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싶다”, 지홍씨는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과의 무역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다.

◆ **이들이 본 이화여대** 끼리끼리 다니며 모르는 사람에게는 먼저 말을 걸지 않거나, 성격에 민

감할 수밖에 없는 각박한 대학생활을 이구동성으로 단점으로 뽑은 반면, “여자들만 있어 눈치 볼게 없는 대학생활은 매우 편하다”고.

전공지식과 다양한 교양 외에 컴퓨터 실력까지 늘리는 것은 터키에 있었다면 어려웠을 것 같다는 페이지씨. 과제물 준비를 통해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들에 익숙해진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 얻어가는 보너스인 셈이다.

◆ **“우리도 이화인이예요”** 언제가 제일 난감하냐고?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다 갑자기 사투리로 웃기는 얘기를 해주시면 저만 빼고 다들 난리가 나오. 다양한 것에 공감할 수 없을 때 가장 안타깝워요.” “교수님께서 ‘우리’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억양 때문인지, ‘우리학생’이란 표현에는 저 같은 외국인이 빠져있는 듯해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지홍씨와 페이지씨의 답변이다.

매우 한국적(?)인 외모의 유우끼씨는 오히려 너무 한국사람 같아서 외국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속상하다고. “교수님께 외국인이라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도 전혀 봐주지 않으실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부모님 보고 싶을 때가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으는 이 다국적의 이화인들이 고국에서 자신의 꿈을 활짝 펴게 되기를 빌어보았다. <은>

'Love Letter' 2004 입학 홍보비디오 제작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화를 입학 홍보비디오 'Love Letter(가제)'가 만들어진다. 입학처(처장 박동숙 교수)가 제작하는 이 영상물은 드라마와 CF의 요소를 혼합한 독특한 기획과 내용으로, 지난해 입학 홍보비디오 'You've got mail'을 만든 언론홍보영상학부 학생들과 주철환 교수가 직접 기획과 촬영을 맡았다. 15분 길이의 'Love Letter'는 주인공이



'Love Letter' 제작에 참여한 언론홍보영상학부 학생들. 본교에 전설로 내려오는 편지의 발신인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이화의 특별함과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업적들을 만나게 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아름다운 가을 교정을 배경으로 종합대학으로서 이화의 다양한 학문 분야들과 우수한 교수진, 꿈을 가꾸가는 학생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이 연극배우 박정자, MBC 앵커 김주하, YWCA 사무총장 유성희 동문 등 쟁쟁한 선배들의 활약상과 함께 소개된다. 11월말경 완성되는 이 영상물은 내년 수시2학기 모집까지 입학설명회, 간담회, 고교방문 등 입학상담 및 홍보시 상영될 예정이다.

이화로 제24호 발간

수험생을 위한 본교 입학안내 뉴스레터인 Ewh@ro 제24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국내 여성1호의 새 길을 개척한 하나로통신 CFO 제니스 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여성 부검의 박혜진, 식약청 의약품 평가부장 양지선, 기획처 서기관 장문선 동문 인터뷰를 비롯, 본교 정시 합격 전략, 교수님이 추천하는 미래 유망분야, 본교 동아리 소개, 예비 이화 인과의 만남 등 다채로운 내용이 담겨있다.

Ewh@ro는 이화여대를 통해 세계로, 미래로 열린 길을 의미하며, 전국 고교 수험생들에게 배부된다.



2004 재학생 모교방문단 워크샵

지난 10월25일~26일(오후5시), 본교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재학생 '모교방문단' 워크샵이 열렸다. 총1백20개교/1백77명으로 구성된 모교방문단은 이번 워크샵에서 모교방문단 활동 준비과정 및 활동내용과 입학전형 안내, 1학기 모교방문단 활동 우수 사례자들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수능시험 기간을 전후해 2학기 모교방문활동을 시작하며, 이화에서의 학교생활과 수험 준비 경험담을 후배들에게 전하게 된다.

총장초청 서울·경인지역 고교 교장간담회

총장초청 서울·경인지역 고교 교장간담회가 11월3일(수)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본교에 우수 학생이 지원·합격하도록 관심을 가져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본교의 교육방향 및 입학전형을 소개하며 고교측으로부터 대학 관련 제안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화 리더십개발원

상호 지지와 연대감 확인하는 멘토링 파티 개최

이화리더십개발원(원장 조 형 교수)은 기업여성리더십과정 수강생 및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11월25일(목·오후6시30분), '멘토링 파티'를 개최한다. 80여명의 기업여성리더십과정 수강생 및 수료생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국내외 기업 임원들이 멘토가 되어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로, 상호 지지와 연대감을 확인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멘토로는 김국길 대표(KK 컨설팅), 김상현 대표(한국 P&G), 이승우 사장(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채욱 대표(GE Korea), 이항림 대표(볼보자동차 코리아) 등을 비롯해 기업여성리더십과정에서 강사로 활동한 국내외 기업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0월27일(수·오후7시)에는 이화리더십개발원제2기 공직여성리더십과정의 일부로 공직·기업·언론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여성리더들을 초청, '유리천장'을 주제로 한 네트워킹 포럼도 마련됐다.

조직사회에서 여성리더들이 겪는 '유리천장'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는 경험적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이 포럼에는 한겨레신문 신연숙 이사, 연합뉴스 김영미 심의위원, KBS 김혜경 시청자센터장과 박태경 외주제작부장, 조선일보 박선이 문화부장 등 동문 언론인들과 조흥은행 김연옥 지점장, 아시아나 항공 김현정 과장, LG CNS 손승혜 컨설턴트, 삼성 SDS 흥혜진 차장 등 기업의 중견 간부들, 서기관급 공직여성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0대 노조위원장에 유종실 주임 선출

노동조합 창립 16주년 기념행사도 열려



학생복지센터 유종실 주임(사진)이 제10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총 조합원 2백59명 중 1백92명이 참여한 지난 8월26일의 노조위원장 선거에 단일후보로 나와 1백89명의 찬성표를 얻어낸 그는 9월16일 신·구 위원장 이취임식(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을 갖고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유위원장은 "모두가 함께 하는 노조, 힘차게 움직이는 노조, 긍정적으로 화합하며 대화하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5일에는 노동조합 창립 16주년 기념행사가 중강당에서 열렸다. 내외빈과 조합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7,8,9대 노조위원장으로 노조 발전에 기여한 유재욱 전위원장이 특별공로상을 수상했고, 그 외 공로상(3명), 모범조합원상(5명)이 시상되었다.

대학보건소, 무료 진료 상담클리닉 개설

대학보건소가 학부 및 대학원생을 위한 산부인과와 피부과 무료 진료 상담클리닉을 개설해 10월2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산부인과는 목동병원 박미혜 의사가 학기중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오후1시30분~4시30분)에 생리불순 등 여성질환 전반을, 피부과는 동대문병원 함정희 의사가 학기중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오후1시30분~4시30분)에 여드름 등 피부질환 전반을 상담, 진료한다. 구내 3178번으로 예약해야 한다.



유창희 대외부총장(국제)

지난 8월31일자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어 9월 10일에는 동 기구의 사회과학분야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

배윤수 교수(분자생명과학)

그간 체내에서 노화, 암, 심장병,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활성산소종이 성장인자나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소량 생성될 경우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인체가 병원균에 대항하기 위한 초기면역체계를 운영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낸 분자생명과학부 배윤수 교수팀의 논문 "TLR4와 Nox4의 결합에 의한 LPS 유도 활성산소종 생성과 NF-kB의 활성화" (Direct interaction of Toll-like receptor 4 (TLR4) with Nox4 isozyme is essential for LPS-induced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activation of NF-kB)이 미국의 면역학회지 'Journal of Immunology' 9월15일자에 게재됐다.



이배용 교수(사학)

지난 9월18일, 이화 삼성교육문화관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여성사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기순 교수(관현악)

지난 10월8일(오후7시30분) 영산아트홀에서 이화첼버오케스트라의 제6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본교 음대 동문들로 구성된 이화첼버오케스트라는 2000년 5월 창단 이래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박신화 교수(교회음악)

지난 10월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올림 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합창 지휘 부분상을 받았다. 한국 100인 창작협회(이사장 황철익)가 제정한 올림 예술대상은 작곡, 작시, 성악연주, 합창 지휘 등 총6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한다.



오숙환 교수(한국화)

지난 9월15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열린 제33회 후소회전에서 제7회 이당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작은 필묵담채 대작 '시간과 공간'. 오교수는 지난 81년 국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7차례의 해외전시회를 가졌다.

오용길 교수(한국화)

지난 9월4일, 중견화가들의 모임인 후소회의 제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후소회는 1938년 이당 김은호 화백의 문화생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한국화단의 대표적인 친목 모임. 후소회는 9월15~24일,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제33회 후소회전을 열었다.



조은미 교수(무용)

지난 10월3~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RAHA BHAKTI BUDAYA 극장에서 열린 Art Summit Indonesia VI. 2004 국제페스티벌에 한국 대표로 현대무용단 탐을 이끌고 참가했다. 조 교수가 안무한 공연은 1부 경멸, 2부 비탄으로 이루어 졌다.

오옥환 교수(교육학)

지난 10월29일, 저서 '한국 사회의 교육열: 그 기원과 심화' (교육과 학사 간, 2000년)로 한국교육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교육열의 사회, 경제, 문화적 원천과 심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 한국 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규환 교수(과학교육)

생성시기가 62만년전인 세계 최연소 화강암을 국내 최초로 울릉도에서 발견, 이를 지난 10월말 대한지질학회에서 발표했다. 화강암 대부분이 6천만~1억7천만년전에 생성된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화강암이 발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강명희 교수(교육공학) 차은영 교수(경제학)



한국가상캠퍼스(www.kvc.ac.kr)에서 수여하는 2004학년도 1학기 베스트 티처상을 수상했다. 강 교수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차 교수는 'Gender and Economics in Korea'를 강의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숙자 교수(사회체육)

지난 9월15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체육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한국 여성체육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강연했다.



직원 인사발령

지난 10월1일(금)자 2004년 후기 직원 인사발령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속	성명	직위	발령사항	비고
예산과	서미옥	사무직원(주임겸 과장직무대리)	명: 주임겸 과장 직무대리(2004.9.30)-보: 과장	
공과대학 과학기술대학원	이상천	사무직원(주임)	명: 총무과	
과학기술대학원	정경희	사무직원(주임)	명: 공과대학/과학기술대학원	
생활환경대학	김혜경	사무직원(주임)	명: 학생복지센터	
교무과	주미향	사무직원(주임)	명: 생활환경대학	
학적과	이승연	사무직원(주임)	명: 회계과	
학생복지센터	유종실	사무직원(주임)	명: 노동조합 파견	
인사과	장영숙	사무직원(주임)	명: 학적과	
관재과	김영철	사무직원(주임)	명: 후생복지과(고사리 수련관)	
경력개발센터	석설희	사무직원(주임)	명: 인사과	
노동조합 파견 (인문과학대학)	유재욱	사무직원(주임)	명: 인문과학대학	원직 복귀
회계과	이지영	사무직원	보: 주임 명: 교무과	
예산과	왕혜정	사무직원	보: 주임	
자연사박물관	강지영	사무직원	보: 주임	
인문과학대학	배은영	사무직원	명: 교육대학원	
인사과	박경옥	사무직원	명: 관재과	
구매과	김평운	사무직원	명: 연구과	
신임	홍순학	기능직	명: 재무처 시설과(10월1일)	
신임	조용식	기능직	명: 재무처 시설과(10월1일)	

(신임직원)



홍순학



조용식

사회복지관, 앞마당 새단장



본교 사회복지관(관장 김미혜 교수)이 (주)우리디자인(대표 박계환)의 후원을 받아 사회복지관 마당(사진)을 재시공했다.

서대문구내 사회복지기관들의 환경개선에 관심이 많았던 박계환 대표는 1억1백20만원 상당의 현물을 후원, 마당전체의 고무블럭 포장, 대문과 펜스설치, 조경작업으로 아동들에게는 안전한 놀이터가,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따뜻하고도 정감있는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 졌다.

지난 10월1일 대외협력처 신경림 처장은 (주)우리디자인 박계환 대표에게 총장 명의의 감사패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대문화론 | 문화사회학자가 본 일본의 현대 사회

이노우에 유미, 최섯별 옮김

현대 문화사회학의 중요한 주제와 이론들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 놓은 일종의 사회학 개론서. 현대 문화를 볼거리의 문화, 걸치레의 문화로 규정한 총론 부분과, 저널리즘·영화·문학·대중음악·종교·여행·패션·스포츠·의료·사랑의 주제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분석한 각론, 그리고 문화사회학의 기본 영어 및 개념을 설명한 키워드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사회의 문화 현상과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사례가 중심이 되고 있어서 더욱 흥미롭다. <1만2천원>

문화사회학으로의 초대 | 예술에서 사회학으로

가메야마 요시아키 외 지음, 최섯별 옮김

일본의 문화사회학자들이 예술 각 분야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 분석한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구분을 없애고자 하는 현대 문화사회학의 조류를 반영하듯 영화, 문학, 아동 문학, 놀이, 만화, 자서전, 일기 등 다양한 주제가 포진되어 있다. 깊이 있는 예술적 지식과 예리한 사회학적 시각이 돋보이는 분석들이면서도 친근하고 쉽게 씌어져 사회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 <1만2천원>

알기 쉬운 개인회생절차

오수근·박용석·김형두·서경환 지음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도산법 전문가들이 개인회생제도의 내용과 의의,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한 Q&A를 통해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식과 법령 전문도 실려 있다.

또한 이 책은 도산법 전문가인 본교 법학과 오수근 교수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본교 도산법센터가 기획하는 '개인회생절차 가이드북 시리즈' 제1권으로 앞으로 계속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안내서가 출간될 예정이다. <8천5백원>

대학미술교육과 21세기 사회

대학미술협의회 편

대학미술협의회가 창립 후 지난 5년간 매년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묶은 책이다. '대학미술 교육의 현황과 전망', '21세기 사회와 미술대학의 교육', '미대입시의 대안', '영상매체 미술교육', '미술대학의 특성화'의 다섯 주제로 나누어, 현 대학미술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



석하고 대학의 미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창작의 정열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교육자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이 책은 현재 미술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미술 교사들과 미대 교수들, 미술을 전공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미술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1만2천원>

Power, Knowledge and Justice I

(아시아 8개국 여성학 교재 시리즈 : 태국편)

Suwanna Satha-Anand(Ed.)

본교 아시아 여성학 센터(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가 기획하는 아시아 여성학 교재 시리즈의 제1권이다. 한국을 비롯한 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대만의 8개국이 참여한 이 시리즈는 각 사회의 가족, 노동, 법, 성 역할, 여성운동 등 여성학의 오래된 화두로부터 문화, 몸, 섹슈얼리티 등 여성주의의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나라별로 다양한 여성 경험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아시아 여성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미래를 향한 여성들의 만남의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판. <2만1천원>

2005 이화사자일기 - 한국의 떡

이종미 글, 한복려 사진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떡은 우리 민족의 생활풍속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단순히 음식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생활문화사적인 의미를 획득하여 왔다. 한국의 떡을 주제로 한 '2005 이화사자일기'는 계절이나 절기에 어울리는 떡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떡이 지니고 있는 문화사적 의미를 간단하게나마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만5천원>

■ 대한민국학술원이 시행한 '2004년도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업 결과, 본교 출판부의 도서 3종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이들 도서는 1종당 1천3백만원 상당으로 대한민국학술원에서 구입할 예정이다.

- 『고구려사』 (신형식 지음)
- 『무용 예술의 이해』 (김말복 지음)
- 『여성신학사전』 (레티 M. 러셀 외 지음, 황애경 옮김)



■ 매년 교보문고가 선정하는 '올해의 책' (총 1백50여 종)에 본교 출판부의 『사랑의 힘』(엘리스 워커 지음, 박정오 옮김)이 선정되었다. 선정 도서들은 10월부터 교보문고 전 지점 및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전시되고 있다. 또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하는 <청소년 권장도서>에는 지난 9월에 발간된 『누가 철학을 할 것인가』(소홍렬 지음)가 선정되었다.

제48회 행정고등고시에 19명 최종합격 전문 행정인으로 역량 발휘할 이화인들

지난 11월9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제48회 행정고등고시에 총 19명의 이화인이 합격했다. 이는 합격자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직종별 합격자는 일반행정직 9명, 재경직 6명, 교육행정직 4명이며 재학생 합격자도 4명이나 됐다. 올해 행정고시 합격자 1백98명중 여성 합격자는 76명으로 역대 최고 비율(38.4%)을 기록했으며, 여성합격자 중 본교 출신은 25%가 넘었다. 본교는 지난해에도 총 16명(일반행정직 12명, 재경직 3명, 교육행정직 1명)의 합격자를 냈으며 2002년에는 18명이 합격했다. 올해를 포함, 지금까지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화인은 총 1백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본교 출신 첫 행정인은 81년에 합격한 장옥주(법학 81년 졸)동문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일하고 있다. 다음은 제48회 행시 합격한 이화인들의 명단.

일반행정 김유미(법학 4년 재학) 김소연(행정 4년 재학) 오은경(사회학 03년 졸) 남우진(정의 4년 재학) 최정희(국문 00년 졸) 안은경(행정 02년 졸) 경혜원(심리 04년 졸) 조경옥(행정 99년 졸) 황효정(행정 99년 졸)

재경 신재형(경제 4년 재학) 박진희(행정 00년 졸) 피계림(행정 02년 졸) 이보경(법학 02년 졸) 김은정(영문 99년 졸) 오미순(사회 01년 졸)

교육행정 박혜원(영문 00년 졸) 이지은(수학 교육 03년 졸) 박정신(교육 03년 졸) 차영아(과학교육 01년 졸)

‘별 헤던 소녀, 우주비밀 푼다’

물리학과 박나희 동문, NASA 프로젝트 참여차 남극행



본교 대학원 물리학과 석·박사 통합과정(3년차) 재학중인 박나희 동문(물리 01년 졸·사진)이 한국 연구진을 대표해 미 항공우주국(NASA)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11월12일 남극으로 떠났다. 크림(CREAM)으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미국, 이태리, 한국 연구진 중 남극에 파견되는 인원은 총24명으로 이중 한국 연구진은 박 동문이 유일하다. 그는 50일간 남극 맥머도 기지에 머물면서 본교 물리학과 박일홍, 양종만 교수팀이 경북대, KAIST 연구진과 함께 개발한 우주선(宇宙線·Cosmic Ray) 원소성분 검출기를 운영하고 관리하게 된다.

실리콘 탑재체(Silicon Charge Detector·SCD)로 불리는 이 기기는 우주선 가운데 초고 에너지를 검출,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우주의 구조를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 초고에너지 우주선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NASA가 향후 10년간 풀어야 할 10대 주요과제중 하나로 꼽을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NASA는 이 기기를 탑재한 초대형 풍선을 남극 상공 40km 지점에 띄워 우주선 검출 및 초고에너지 성분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본교 물리학과 박일홍 교수는 “지난 3년간 실무연구진으로서 각종 실험에 참가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해 박나희씨를 한국측 대표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실리콘 탑재체가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생각에 남극이 얼마나 추울까 하는 것은 걱정도 못했었다”는 박 동문은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국내 미개척 분야인 우주선 연구에 도전, 우주의 신비를 하나하나 벗겨 내고 싶다”며 별헤던 소녀적부터 간직해 온 포부를 털어놓았다. <덕>

동문동정

김진주 동문(국문 69년 졸)



지난 10월27일, 위암 방지 연선생기념사업회와 한국언론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제15회 위암장지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으로 재직중인 김 동문은 지난 4월 이화언론인클럽(회장 신연숙)이 수여하는 ‘2004 이화언론인’ 상도 받은 바 있다.

임영숙 동문(신방 71년 졸)



지난 10월19일,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여성부가 후원하는 제4회 비추미 여성대상의 달리상(문화 언론 사회공익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 동문은 서울신문 첫 여성주필이자 한국여기자클럽 회장으로서 여성언론인 지위 향상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기영 동문(정치외교 91년 졸)



KBS 아나운서인 성 동문은 다양한 경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인 공로로 지난 10월26일 제41회 저축의 날 국무총리 상을 받았다. 현재 본교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산업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성 동문은 ‘성기영의 경제투데이’ ‘일요세미나’ 등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정은 동문(사회 76년 졸)



지난 10월 현대그룹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정몽헌 회장과 사별한 후 현대그룹 회장직을 맡게 된 현 동문은 가정주부에서 그룹 경영인으로 변신해 현대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끈 리더십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홍은아 동문(체육 03년 졸)



지난 11월10일 태국에서 개막된 세계 여자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주심으로 초청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전세계 13명의 주심만이 참가하는데 홍 동문은 그간의 국제심판 경력을 인정받아 당당히 초청된 것.

윤숙자 동문(무용 73년 졸)



지난 10월1일 일본항공(JAL) 인천공항 여객 운송부 총책임부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일본항공 전세계 40여개 공항 지점을 포함, 사상 첫

여성책임자가 되었다.

윤 동문은 73년 스튜어디스로 출발, 일본 나리타 공항, 서울 지점 등에 근무해 오면서 항공운수업계에 몸담은지 31년만에 운송부 총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이성희 동문(동양학 74년 졸)



지난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사업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졸업후 일본에서 노인복지와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이 동문은 89년 당시 고건 서울시장의 권유로 서울시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맡으면서 노인복지 사업에 뛰어 들었다. 91년에 설립한 한국치매가족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

조정아 동문(과학교육 90년 졸)



지난 9월 여성부장관 정책보좌관에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동문은 본교 한국여성연구원을 거쳐 경기도 여성정책국 정책개발팀장, 서울시 늘푸른여성정보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앞으로 경기도 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IT 교육, 여성창업주 지도 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장학금 기탁자

임주자 동문

**월드장학재단장학금 1억여원 약정
사회에 봉사하는
여성지도자를 기대하며**



임주자 동문(왼쪽)이 신인령 총장에게 약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임주자 동문(이영희46기, 월드장학재단 감사)이 지난 9월20일, 총장실을 방문해 여성법조인 양성을 위한 이화사랑장학기금 1억1천6백96만원을 약정했다. 이 기금은 이번 학기부터 10년간 법대생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임 동문은 평소 이영희에서 발간되는 '이영희 회보'에 실린 장학금 기탁기사를 보고 장학금 기탁 의지를 갖게 되었으며, 여성법조인 양성을 위한 장학금 후원에 관한 안내를 접한 후 이번에 장학기금을 기부하게 되었다.

임 동문은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학비마련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 바란다"며 이들이 훗날 능력있는 여성지도자가 되어 이 사회에 다시 봉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동문의 가족으로는 남편 조규상(월드장학재단 이사장)씨와 두 아들 내외가 있다.

서숙 교수 이화사랑 장학기금 2천만원 약정

지난 10월13일 서숙 교수(영문학 전공)가 이화사랑장학기금 2천만원을 약정했다. 그는 "이화대학의 졸업생으로서, 이화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수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로 장학금 기탁 소감을 대신했다. 서 교수는 급여공제로 매달 20만원씩 납부하게 되며, 이 장학금은 퇴직 후 영문학 전공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특강강사료를 장학금으로 기부

건축학과 초빙교수인 박영환 교수가 건축학과 대학원생 특강강사료 전액 1백50만원을 건축학과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또한 경영대학 겸임교수인 김재철 교수(한국무연협회 회장)와 이승배 교수(한셋투자자문(주) 대표)가 경영대학 CEO특강 강사료 30만원을 경영대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가을교정과 함께 하는 이화캠퍼스센터(ECC) 콘서트



대외협력처 (처장 신경림 교수)가 마련한 '가을교정과 함께 하는 이화캠퍼스센터(ECC) 콘서트'가 지난 11월3일(수·오후7시), 1만여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다. SBS와 함께 했던(11월6일 오전11시 녹화방영) 이번 콘서트는 이화캠퍼스센터 신축을 앞두고 1백20년동안 한국 여성교육을 선도해 온 이화를 되돌아보면서 미래의 꿈과 이화 사랑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신인령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곳 대운동장과 이화광장의 지하가 최첨단 교육공간인 이화캠퍼스센터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소개하면서 내년 봄 역사적 착공을 앞두고 이같은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자유·미래'라는 주제 아래 2시간30여분간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는 이화가 족뿐만 아니라 동문들, 지역사회 주민, 중고교생들이 대거 참여, 8천석에 달하는 대운동장 좌석은 물론, 스타디움 주변과 체육대 안까지 청중으로 채워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ECC 홍보영상물 소개로 시작된 콘서트에는 본교 성악과 신지화 교수와 김상곤 교수를 비롯, 비, 김종국, 럽블피시, 린, 김현정, 인순이, 신형원, 노사연, 보아, 동방신기, 신화, 김수철 등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열띤 환호를 받았다.

장학금 5천만원 완납자 2005학년도부터 지급예정



김혜란 동문



이계우 교수



이영숙 동문



박희지 동문

김혜란 동문(이영희 39기·이영희연합회 상임고문), 이계우 교수(국제학과), 이영숙 동문(영문 68년졸), 박희지 동문(이영희 35기·

ALPS총동창회 고문)은 5천만원을 약정한 후 분할 납부의 형태로 약 1년~3년동안 꾸준히 입금하여 장학금을 완납해주신 분들이다. 2002년 5월에 역량있는 여성 후배를 키우고 싶다는 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약정한 김혜란 동문은 5회에 나누어 납부했고, 국제대학원의 우수한 입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난해 12월 5천만원을 약정한 이계우 교수는 2회에 나누어 납부했다. 2002년 3월부터 납입을 시작한 박희지 동문은 매월 1백66만6천원씩 자동이체로 30회 입금하여 완납했다. 박 동문의 장학금은 심리학 전공생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2001년 11월에 5천만원을 약정한 이영숙 동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납부하여 당초 약정된 기간보다 앞당겨 완납했다. 이 동문의 장학금은 영문학을 연구할 모범적인 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 장학금들은 각 기탁자 이름으로 2005학년도부터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이화의 미래를 여는 사랑과 헌신의 밑알들

이화캠퍼스센터(ECC) 건립기금 모금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과 동문들의 ECC 기금 약정이 이어지고 있다.

ECC기금을 보내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김옥순(기독교 63년졸) 1천만원, 신순재(법학 74년졸) 1천만원, 김민선(경영 87년졸) 5백만원, 이연숙(정의 62년졸) 5백만원, 서란숙(한방노동피부관리실 원장) 3백만원, 이은영(대학원 교육심리 82년졸) 3백만원, 전소영(무용 89년졸) 3백만원, 정용석 교수(기독교학전공, 교육실장) 3백만원, 정희재(정의 73년졸) 3백만원, 조경숙(사회생활 91년졸) 3백만원, 최양숙(법학 70년졸, 경력개발센터) 3백만원, 김진호 교수(경영학전공) 1백50만원, 구해정(정의 71년졸) 1백만원, 김구현(대학교회 교인) 1백만원, 김창수(대학교회 교인) 1백만원, 방주영(보건교육 83년졸, 기술사) 1백만원, 신미경(법학 74년졸) 1백만원, 이재숙(재무처 구매과) 1백만원, 정정희(기독교 72년졸, 약학대학 행정실) 1백만원

장학금 기탁 소식

본교 구내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오종 대표(동서리츠개발주)가 지난 10월25일 대외협력처를 방문하여 3천만원을 전달했다. 박오종 대표는 이화사랑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약정했고 이제까지 총 6천만원을 납부했다.

그 밖에 장학금 약정자는 다음과 같다

김순자 동문(이영회 29기) 1천2백만원, 최영숙 동문(정의 58년졸) 5백만원, 김영순 동문(정의 73년졸) 3백만원, 김은주 동문(정의 81년졸) 3백만원, 이양준 동문(정의 70년졸, 대외협력처) 3백만원, 차남희 동문(정의 76년졸,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1백80만원, 백남진 동문(정의 81년졸) 1백50만원, 양정열 동문(정의 56년졸) 1백50만원, 이재향 동문(정의 57년졸) 1백50만원, 정희재 동문(정의 73년졸) 1백50만원, 조기숙 동문(정의 82년졸, 국제학과 교수) 1백50만

원, 장은심 동문(정의 86년졸) 1백50만원, 최은봉 동문(정의 81년졸,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1백50만원, 함재정 동문(정의 82년졸) 1백50만원, 황유정 동문(정의 85년졸) 1백50만원, 구영희(자영메디칼 대표) 1백만원, 현호임(이영회 59기) 1백만원

발전기금 기탁 소식

이화국제재단에서 보내온 기금 소식

미국에 있는 이화국제재단에서 재미 동창들이 약정한 간호과학관 건축기금과 사범대학교육관 신축기금 등을 보내왔다.

<간호과학관건축기금>

안혜숙(간호 71년졸) US \$3,600, 심재옥(간호 71년졸) US \$2,000, 신경순(간호 69년졸) US \$500, 양정남(간호 60년졸) US \$200, 정지은(간호 94년졸) US \$200

<사범대학교육관신축기금>

이범명(교육공학 67년졸, 해외동문) US \$1,000

<장학금>

조셉클리벨로 US \$2,500

이화보이스 발전기금 기탁

지난 7월4일 이대학보사 영자신문 Ewha Voice 창간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화보이스 기자 출신 동문 8명이 이화보이스 발전기금으로 4백만원을 모아 기탁하였다.

김숙자(영어영문 55년졸) 1백만원, 김순재(영어영문 55년졸) 1백만원, 손경임(영어영문 55년졸) 1백만원, 김승숙(영어영문 55년졸) 30만원, 김태옥(영어영문 55년졸) 30만원, 박순환(영어영문 55년졸) 20만원, 명용애(영어영문 55년졸) 10만원, 백준명(영어영문 55년졸) 10만원

그 외 발전기금 기탁 현황

국민은행 2천5백만원

(주)Agilent Technology 1천9백55만원

사범대학 교육관 신축기금

박영숙(교육대학원 교수) 5백만원, 서영신(음악교육 04년졸) 1백만원, 김성이(음악교육 04년졸) 1백만원, 김주연(음악교육 04년졸) 1백만원, 박랑규(교육심리 81년졸, 교대원 겸임교수) 1백만원, 이영욱(교육행정 01년졸) 1백만원, 고훈진(미술교육 재학중) 1백만원, 유선희(유아교육 04년졸) 1백만원, 손경순(체육교육 80년졸) 1백만원, 김양근(체육교육 84년졸) 1백만원, 김정수(체육교육 82년졸) 1백만원, 문영순(미술교육 97년졸) 1백만원, 양정수(체육교육 77년졸) 1백만원, 최명숙(시정각교과 71년졸) 1백만원, 강소자(지리교육 88년졸) 1백만원, 전미숙(체육교육 84년졸) 1백만원, 조은미(체육교육 81년졸, 무용과 교수) 1백만원, 윤덕경(체육교육 83년졸) 1백만원, 박경숙(체육교육 82년졸) 1백만원, 함현주(체육교육 90년졸) 1백만원, 김현미(체육교육 93년졸) 1백만원, 정유선(미술교육 03년졸) 1백만원, 황희재(미술교육 01년졸) 1백만원, 김정순(초등교육 90년졸) 1백만원, 박혜련(미술교육 재학중) 50만원, 김민영(미술교육 04년졸) 10만원, (이상 교육대학원 동문) 한유경(교육학 81년졸, 교육학과 교수) 3백만원, 주성민(교육학 69년졸) 2백만원, 김현진(사회생활 98년졸) 1백만원, 차명자(교육학 69년졸) 1백만원, 최영자(사회생활 66년졸) 1백만원, 성금순(교육공학 90년졸) 30만원, 손미(시정각교과 86년졸) 30만원

간호과학관 건축기금

권유원(간호과학 02년졸) 2백만원, 김화영(간호과학 75년졸) 2백만원, 전해옥(간호과학 02년졸) 2백만원, 황정자(간호과학 65년졸, 해외동문) US \$1,000, 송은주(간호과학 99년졸) 1백만원

패션디자인연구소기금

주)디피아이 1천만원

조형예술대학 특별프로젝트기금

이명학 36만원

장학금 지급소식

이화인닷컴 장학금 첫 지급

대외협력처(처장 신경림 교수)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진행한 E-pro(2%) 온라인 모금캠페인으로 모인 장학기금을 '이화인닷컴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2004학년도 2학기에 처음으로 지급했다. 모금참여자 1백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학생 자격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화인닷컴 장학금 신청자 11명 중 이화인닷컴 장학생 자격조건에 적합한 학생 1명을 심사 선발하여 장학금 1백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은 이화인닷컴 회원들에게 보내온 편지에서 "무엇보다도 많은 선배님들께서 용돈의 2%를 모은 정성으로 마련해 준 기금이기에 뜻깊고, 학업을 포기하려했던 제게 힘을 모아주신 선배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학생은 장학생에 선발된 후 본인도 E-

pro(2%) 장학금의 기부자가 되었다.

E-pro(2%) 온라인 모금 캠페인은 '용돈의 2%', 'Ewha의 후배를 pro로~!' 라는 취지로 현재도 진행 중인 소액모금캠페인이다.

이화인닷컴 사이트(<http://www.ewhain.net>)를 통해 빠르고 쉽게, 작은 돈으로 장학기금 마련에 참여할 수 있다.

2004학년도 2학기 지급 장학금



한상순 동문

장학금으로 부군 한상준(주)금성제어기 대표)씨와 시누이 한상순 원장이 2002학년도 1학기부터 매

지난 8월26일 한상순 동문(사회복지 72년졸, 애란원 원장)은 대외협력처를 방문하여 권하옥 장학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권하옥 장학금은 고 권하옥 동문(사회복지 63년졸)을 추모하는

학기 3백만원씩 사회복지학 전공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학기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이번 학기에도 변함없이 장학금을 보내와 2004학년도 2학기에 지급된 장학금은 다음과 같다.

한영재(삼양화학주식회사 대표), 1천2백만원 유종근(영문 67년졸) 1백50만원, 신 원(범양금속주식회사 대표) 4백43만5천원, 김동래(이영회68기) 1백만원, 대학교회 3백만원, 아현감리교회 1백만원, ICSF장학재단 US \$2,500, 김미경(식품영양학전공 교수) 1백20만원

이우회 장학금 지급

지난 8월26일 본교에 재직하는 여자직원모임인 '이우회(회장 이양준)가 2004학년도 2학기 장학금으로 2백만원을 대외협력처로 보내왔다. 이우회장학금은 학생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발된 2명의 학생에게 각 1백만원씩 지급되었다.

이우회는 그 동안 매년 1명의 학생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1백만원 증액하여 2명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

미니 인터뷰/17대 의과대학장 한운섭 교수

“내년이면 의대 창립 60주년, 경쟁력있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발전시킬 터”



“내년에 의대가 창립 60주년을 맞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회갑, 한단계 성숙해 지는 계기로 삼아야지요. 또한 2007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합니다. 교직원, 학생,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대한민국 유일의 여자 의대라는 역사와 전통을 살려 경쟁력 있는 의학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80년부터 본교 의과대학에서 여성 의료인력 양성에 힘써오다 17대 학장으로 선임된 한운섭 교수(병리학교실)는 의과대학의 기본 목표인 교육에 대한 신념부터 강조했다. 먼저 사회 일각에 의료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료원 양성을 위해 기존의 교육방식에 인성교육 및 사회 윤리적인 과목 등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과대학은 현재 중추중인 의대 건물이 창립 60주년인 내년에 완공되면 재학생, 교수, 동문, 지역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60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행사를 준비중이다. 이외에도 2007년 의학전문대학원 출범을 앞두고 ▲의과학 연구소 확장 및 보강 ▲의학교육실운영 ▲발전기금 통한 기숙사, 장학금, 해외연수 확대 ▲과별 특성화 ▲기초의학분야 활성화 등 의대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모자센터 유니세프 선정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목동병원 모자센터(소장 김영주)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에 의해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이 두 기구는 1992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병·의원과 조산원을 선정,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 목동병원 모자센터는 지난 10월1일 유니세프에서 권장한 10가지 사항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서면심사 등 여러가지 절차와 심사를 거쳐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방사선종양학과, 의료보조기기 개발 보급 화제 10여 대학병원에서 적용 준비중



획기적인 방사선치료보조기구인 Ewha Breast Device(EBD·사진 왼쪽)를 자체 개발해 2년간의 임상 실험을 거쳐 활용중인 목동병원 방사선종양학과(과장 서현숙)가 이 기구를 10여개 대학병원에 무료로 배포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기구를 제작한 방사선종양학과 신현교 기사는 “현재 유방암 방사선 치료시 팔을 고정시키는 기존 보조기구가 CT-Hole보다 크기 때문에 고가의 CT-시뮬레이터를 이용하거나, 기존 CT로 치료시 자세가 임의로 고정돼 정확도가 떨어지며 환자도 불편해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체형 2백여건을 분석해 제작한 이 기구는 CT-Hole에 적합한 크기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 치료자세가 정확하고 부작용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기사는 “이 보조기구로 기존 CT에서 무리없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 몇 건의 유방암 치료를 위해 고가의 CT-시뮬레이터 구입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위해 기기제작과 정 전부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부, ‘임신에서 출산까지’ 교재 만들어

간호부에서 ‘임신에서 출산까지’라는 CD를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DVD, CD, 비디오 등 여러 매체로 호환이 가능한 MPEG화일로 제작된 이번 실습교재는 간호부의 이정화 병동간호과장, 조광남 모자센터 수간호사 등이 ‘파워여성팀’이란 팀을 구성, 자체 제작했으며, 배란, 임신, 출산, 모유수유 등 예비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

동대문 병원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검진 실시

동대문병원(원장 연구월)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의 의료협력협약에 따라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사회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무료진료 및 강좌(사진)를 실시중이다. 사회복지관 회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진료상담 및 무료검진은 피부과 함정희교수의 ‘피부질환 상담 및 진료’ (10월6일)를 시작으로 성형외과 박홍식 교수의 ‘성형수술 바로알기’ (10월13일), 성형외과 이지혁 교수의 ‘성형수술 바로알기’ (10월20일),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의 ‘폐암의 최신진단과 예방법’ (10월27일)이라는 주제로 이어졌다.

동정

강덕희 교수, 2004 분취의학상 젊은 의학자상 수상



대한의학회와 한국배리거인젤 하임이 공동 수상하는 제14회 분취의학상 젊은 의학자상에 선정됐다. 강 교수는 ‘에스트로겐에 의한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의 발현 조절’이란 연구를 통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신장세뇨관의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및 구조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규명, 남성이 신장 질환에 걸렸을 때 여성 보다 더 빨리 악화되는 원인을 밝혀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다.



윤태식 교수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취임

지난 10월16일 대한재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새 이사장에 취임해 2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다.



정형외과 노권재 교수 대한관절경학회 신입회장에

지난 9월17일 서울대병원 임상 의학연구소에서 열린 대한관절경학회 제11차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신입회장에 선출됐다.



외과 최용만 교수 대한외과학회 회장 취임

지난달 29일 대한외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취임해 1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다.



생리학교실 하중식 교수 대한생리학회 회장에 피선

지난 10월14~15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수원)에서 열린 제56차 대한생리학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